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19호
4월 13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정책위원회에 추천 의뢰 결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2차모임 가져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찬 목사)는 지난 4월 2일(토)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68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김인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권우석 목사의 기도, 김인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26:33-3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사순절 기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입으로 장담하고 맹세까지 하고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목회현장에서 자만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앞도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말씀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정의섭 목사의 경위보고를 통해 지난 3월 30일까지 임원 입후보자가 없으므로 헌법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추천을 의뢰

하기로 결의했다.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진이 추천되면 관련 서류를 정리 자격심사를 거쳐 임원진을 공포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들이 지켜 행할 일들’



조용목 목사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 1:20~23)

유다는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을 세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신분과 상태가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믿음에 두고 준행해야 할 일들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복음에 뿌리내린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사상, 철학, 환상, 신비체험, 종교에 근거한 믿음과는 구별된 다른 믿음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속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 성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모든 믿음은 성경에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에 부합하는 믿음만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통틀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시며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

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 4:910).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넷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물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현재 영생을 얻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 완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로나 우로 치우친 신학이나 교리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생을 내어 기도하고 찬송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물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물리침을 받게 됩니다. 주 하나님의 공물은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공회하 여가라’ 하였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며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미혹을 받아 의심하는 자들을 공회하 여가고 이런 자들을 보살피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어떤 자’는 의심하는 자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빠진 자, 이단적 교리에 폭 빠져버린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위험이 따릅니다. 자칫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공회하 여가지만 그들의 죄는 혐오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질 때처럼 용의주도하지 않으면 도리어 끌려들어갑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합부로 담지마야 합니다. 적절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명령을 좇아 살아가는 것을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교단 증경총회장 서병열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바른 복음 전파 위해 평생 헌신

교단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의 부친이자 교단 증경총회장 서병열 목사가 지난 4월 2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2세인 고 서병열 목사는 교단의 역사를 한 몸으로 지켜낸 목회자였다. 고 서 목

사는 불의와 일체 타협 없이 오직 정도만을 걷는 목회자로, 굳건한 신앙인으로 자녀들을 목회자로 신앙인으로 길러 내었는뿐만 아니라 역사의 굴곡을 몸으로 겪으면서도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해온 믿음의 산 증인이었다.

5일(금) 오전 9시 고 서병열 목사가 시무했던 남원중앙교회에서 드려진 발인예배에는 교단 총무 신재

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계 14:12-13 말씀을 본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평생 동안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자 헌신하셨던 서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서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불의와는 일체 타협이 없으신 분이셨다”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서 목사님을 평안으로 인도하셨으며 서 목사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셨다”고 강조하고 사랑하는 아버님과 목사님과의 이별에 마음이 아픈 유가족들과 성도들을 위로했다.

이어 유가족 대표 서정석 목사(장남)는 인사말씀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도로 발인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고 서병열 목사는 인근의 남원중앙교회 부활의 동산에 안장되었다.



고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55주기 추모행사

인천상륙작전 한국전쟁 물결 바뀌,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구해

고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55주기 추모행사가 지난 4월 6일(토) 오후 2시 인천시 중구 송화동 1가 자유공원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 앞 광장에서 사단법인 한미친선연합회(총재 반중수, 대표회장 홍시광) 주최로 열렸다.

추모행사는 기회 선언에 이어 한미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한미 양 국가의 연주로 한미 간의 굳건한 협력을 확인한 후 기도에서 이어 한미친선연합회 홍시광 회장의 인사말씀, 한미친선연합회 반중수 총재의 추모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추모행사에서 미국인으로는 고 더글러스 맥아더 기념관 크리스토퍼 콜라 코우스키 관장, 주한 미국대사관 해리 해리스 대사, 주한미8군 사령부 등이 추모사를 보내 관계자들이 대동했다.

크리스토퍼 콜라 코우스키 관장은 추모사에서 “1950년 9월 15일 기적적인 인천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맥아더 장군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작전은 한국전쟁의 물결을 바뀌었고 우리의 전 국토가 함락될 뻔한 한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구했습니다”라고 추모했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추모사를 통해 “맥아더 장군에 대한 칭송은 헤아릴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그가 국민 명예훈장을 받은 것과 미국 역사상 몇 안 되는 오성장군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맥아더 장군이 이룬 업적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더 단단해지고 더 결속되어지고 이 동맹을 밝히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치하했다.

추모행사에는 한미친선연합회 회원 및 시민들이 맥아더 장군 동상 앞과 주변을 가득 메운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의 생애와 업적을 추모하고 한국

과 미국의 동맹과 친선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추모행사를 주최한 한미친선연합회는 2007년 2월 14일 한미 양국 국민의 친선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순수 민간단체로 창설된 사단법인이다.

이 단체는 “한미동맹에 있어 정부차원에서 이룰 수 없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제2의 외교사절로서 양국 간의 관계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한미친선연합회 가족 모두 노력해 갈 것”을 다짐했다.

02)486-5541 http://www.kufa.or.kr



방송통신선교 추진 20주년 축복기도회

“지나 온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비전 제시”

은혜와진리교회 방송통신선교 추진 20주년 기념 축복기도회가 3월 31일(주일) 저녁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정보통신선교회와 방송통신선교회 회원 및 방송통신선교사와 기도로 후원하는 성도들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드려졌다.

이날 기도회는 영상국장 김요한 목사의 사회로 방송통신선교연합회 회장 이근영 장로의 기도, 수원성전 이재민 형제·안양성전 정영환 형제·세계선교연합회 그레이트 앤 투루스 미션과이어의 특송, 20주년 기념 특별 영상 성령,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장기근속 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설교말씀, 안산성전 방송통신선교회 회장 성하룡 장로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용목 목사는 정보통신선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장기 근속한 회원들(20년 근속: 이근영 장로, 김현회 안수집사, 이성영 안수집사, 15년 근속: 강현 성도, 10년 근속: 김진섭 집사, 이성광 집사)에게 근속패를 수여하고 격려해 주었다.

이어서 조용목 목사는 요 20: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각종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사역의 궁극적 목적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하며 재는 있는 성도들의 더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연합회가 정족의 발전을 이루고 큰 성과를 거두기까지 그동안 총만 한 사명감으로 헌신해 온 봉사자들의 수고를 치하하며 축복해 주었다.

지난 1999년 전화 회선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으로 시작된 은혜와진리교회 정보통신선교회의 인터넷 선교는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매체 활성화로 그 어느 때보다 귀한 방송통신선교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운영 중인 GNTC TV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GNTC TV의 정규방송 체제를 구축하며, 방송통신선교사를 더욱 확충하고 미래의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 정보통신 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살·치매예방 대책마련 나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치매예방 및 자살방지 위한 출범식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 이하 한기지협)가 '한국교회 치매예방 및 자살방지를 위한 출범식'을 지난 3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여전도회관에서 갖고 국가적 시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과 치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함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존엄한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한국교회의 당연한 사명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기지협 회원들은 자살과 치매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공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공동회장 최병두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상형 사관의 기도, 기갑서울여선교회의 찬양, 상임회장 김진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호 목사는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한국은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만가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한기지협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로써 이 운동이 계속되어 나라가 바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시간에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회복을 위해' 이희두 목사(예장 합동보수 총회장)가, '자살방지 및 사회 안정을 위해' 최창규 목사(한기지협 공동부회장)가 기도를 인도했다.

2부 행사는 상임이사 한정영 목사의 사회

로 주관단체인 생명존중교육원 원장 이부경 장로의 환영사, 김해철 목사(루터대 전 총장)의 격려사, 이정춘 목사(전국민3일장비우기 총재)·이강욱 장로(예장개혁 부총회장)의 축사가 이어 이혜왕 목사(생명존중교육원 사무총장)의 선창으로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기지협은 치매예방 및 자살방지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임명해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은 조용원 목사(연세동문회 상임이사)의 기도로 마쳤다.

한장충, 국제난민지원센터 방문

난민 위로하고 한국교회와 더불어 지원 약속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한 장충은 지난 3월 29일(금)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대표 이호택)를 방문하여 난민들을 위로하고 지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단법인 피난처는 박해와 전쟁을 피해 피난한 국제난민들과 북한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법률지원, 의료지원, 직장알선 등으로 난민들을 지원하는 기독교비영리기관(NGO)이다. 1999년에 설립되어 현재, 남아프리카, 모로코,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온 난민 10명이 머물고 있다.

이날 방문한 한장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인사말에서 "여러분은 고국, 고향을 떠나 먼 타국인 이곳에까지 온 이유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며, 특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참된 자유를 얻기를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기도하며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 정치적 이유로 이곳에 온 필레몬(가명)은 본국에서 사회학 교수로 일을 한 인물로 "이곳 피난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한국교회와의 연결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모로코에서 온 청년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곳까지 왔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 점을 말하였다.

이호택 대표는 우리나라의 난민현황, 난민정책 그리고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기독교난민지원단체로서 이곳에 오는 난민들에게 신앙으로 안내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한국교회에서 특별한 선교적 관심을 갖고 이들 개인과 연결을 제안하였다. 이곳 난민들은 각 언어권에서 오고 있기에 선교단체 및 교회에서 이들과 연결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면 선교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또 선교에 대한 준비가 되리라고 하였다.

송태섭 목사는 한국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난민들에 대하여 따뜻하게 인아주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교연, 업무협력위한 임직원 해외연수

중국 쓰촨성 일대 돌아보며 협력과 단합의 기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대표회장 업무협력을 위한 임직원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소명을 뜨겁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해외연수는 권태진 대표회장이 취임한 후 회원교단 총회장, 총무(사무총장), 상임특별위원장, 사무처 직원들 간에 업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한국교회 안에서 한교연이 지난 8회기 동안 수행해 온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45명이 참여한 이번 해외연수는 지난 2008년 대규모 지진으로 큰 재해를 당한 중국 남서부 쓰촨성 일대와 초수이(赤水)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지역 및 티베트 고원점점 차마고도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되

었으며, 20일 수요일 저녁에는 숙소인 쓰촨 에덴 리조트호텔 대연회실에서 권태진 목사의 사회로 수요기도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 "최근 중국 당국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어내고 선교사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억압과 탄압을 받을수록 더욱 왕성해진다"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탄압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한교연이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분부하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더욱 단합해 전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번 한교연 해외연수는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원종훈 김효종 박요한 목사 등 3명의 상임회장과 통추위 원장 송태섭 목사 등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세선협, 제135차 월례회 연합교회에서 개최

사무총회 4월 23일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규섭 목사, 이하 세선협) 제135차 월례회가 3월 28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63-8에 위치한 연합교회(원순익 목사)에서 1부 예배, 2부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양실장 김경수 목사(로고스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제1부 예배에서 강영순 목사(생명의강교회)가 대표기도하고, 조용수 목사(행복교회)가 마 27:4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첫째, 믿음은 깨끗해야 한다. 둘째, 씨는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 삼십의 욕심은 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경 목사(열방교회)가 헌금기도하고, 전종호 전도사의 인도로 ▲나라의 안보와 경제회복을 위하여, ▲세선협 부흥과 동남학원 학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선협



회원들과 각 가정을 위하여 다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한 후 회장 한규섭 목사(삼동제일교회)의 축도로 제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회장 한규섭 목사의 사회로 서기 진인숙 목사의 회원점명, 회장의 개회 선언,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풍성한교회)

의 전 회의를 통해 방목에 이어 회계 송민자 목사(함사랑교회)의 보고, 임양택 회계보고는 전종호 전도사가 유인물로 보고, 임양택보고는 임양실장 김경수 목사가 준비한 유인물대로 받고, 총무 전순익 목사가 보고하고 광고를 전했다.

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 전국 순회 세미나 연다

4월 11일 부산 시작 광주, 대전 등서 전문가 나서 집중해부

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위원장 윤익세 목사)가 전국 순회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연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금) 전체회의를 갖고 이슬람대책세미나와 이슬람이카데미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 윤익세 목사는 "이슬람에 대해 바

로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최근 동향에 이르기까지 세미나를 통해 세세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슬람들이 갈수록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4월 11일(목) 부산 부전교회(박성규 목사)에서 제1차 이슬람대책세미나를 시작으로 제2차는 5월 16일 광주중흥교회(김성원 목사), 제3차는 6월 18일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에서 개최된다.

한기보협, 제9회 미스바 회개기도회

이단사이비대책세미나도 함께 가져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3월 26일(화)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강서로 소재 비전센터에서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란 주제로 제9회 미스바 회개기도회 및 이단사이비 대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수신학 확산활동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김영호 목사(별인이사)의 사회로, 배정희 목사(예능부흥신학 이사장)의 기도, 문혜숙 목사(예장 보수연합)의 성경봉독, 강현주(전양사역자)의 특송, 박영호 목사(기독교문서선교회 회

장)의 사 8:7-8절을 본문으로 한 '임마누엘 신학'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문화예술단찬양단의 봉헌찬양, 총무 김건 목사(예장합동제일)의 헌금기도, 한홍교 목사(대표회장)의 인사말씀, 김준희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장한국 목사(예장진리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홍교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도회 및 세미나의 비범 일정 속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단사이비를 구별하는 것을 잘 배워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계속해서 2부 세미나는 김철웅 박사(백석대학원 선교학)가 '표준 이단분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했다.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창립28주년 기념식

"죽음, 그 이후" 주제 공개강연...죽음준비교육, 학술강연회 가져

각당복자재단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이사장 라제진)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죽음, 그 이후"라는 주제로 4월 6일,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각당관에서 기념식 및 공개강연회를 가졌다.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는 1991년 창립 이래 매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과 죽음학 학술강연회 및 공개강연회를 개최

해왔다. 올해 28주년을 맞이해 많은 연구와 강의를 통해 한국 죽음학계를 이끌고 있는 두 교수를 초청, 죽음 담론의 중요한 주제인 "죽음, 그 이후"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정현채 교수(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 이사장, 전 서울대의과대학 교수)는 "죽음은 소멸이 아닌 옮겨감"이란 주제로, 최준식

교수(죽음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사후생'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이들 통해 '죽음'과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kadec@kakdang.or.kr

세계바울부흥선교협 실행위 열려

오는 5월 17일 용문산기도원에서 기도회 갖기로



세계바울부흥선교협의회(대표회장 심재선 목사)는 지난 3월 22일(금) 오전 11시 올림피아호텔에서 실행위원회를 갖고 오는 5

월 17일(금) 경북 김천 용문산기도원에서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이성민 목사 사회로 기

태영 목사의 기도, 이성민 목사의 성경봉독, 최남복 목사의 마 22:34-40절을 본문으로 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계속해서 기태영 목사의 헌금기도, 황준의 목사의 헌금송, 조지현 목사의 성사낭독, 김중서 목사의 광고 후 최남복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오찬 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는 대표회장 심재선 목사의 사회로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세계선교와 교회부흥을 위하여' 황준의 목사가, '국가 안보와 경제회복을 위하여' 김중서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한편, 다음 모임을 오는 5월 17일(금) 갖기로 결정하는 한편 모임 후에는 김천 용문산기도원에서 이듬해 특별기도 모임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2019년 제3차 민족과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

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2019년도 제3차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3월 28일(목) 오전 7시 신장면 소재 보배로운교회(정현원 목사 사무)에서 가졌다.

박귀환 목사(동천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서석웅 목사(아산성결교회)의 기도예에 이어 정현원 목사는 롬 1: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적으로 보증을 들고 있는데 복음은 가장 확실한 보장과 안전한 보증이 다”라며 “이 복음을 우리도 잘 유지해야 하지만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진 보고회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의 국정현안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국회 보사위원장으로서의 업무적인 측면에서 동성애관련업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가진 황기식 목사의 인도로 가진 기도회에서 민족복음화와 아산시기독교연합

회를 위하여 최순식 목사의 기도, 국가안보와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박건구 목사(경찰교육원 원목)의 기도, 성령증정체와 인권조례안반대를 위하여 이세영 장로의 기도예에 이어 합심기도로 제복기도한 것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3월 31일(주일) 오후 5시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트리교회(담임 성중경 목사)에서 제88차 총회 제주지방회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에서는 성중경 목사가 고후 11:23-2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극한 환경이 사도바울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것 같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이 주신 제주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부 정기지방회 회무에서는 지방회 임원으로 지방회장에 김건수 목사(제주한미음교회)와 지방회 총무에 안재홍 목사(순복음만



남의교회)를 유임시키기로 했다.

이후 교회별 소식을 통해 그동안 합심으로 기도해왔던 성중경 목사의 외동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리언스대학에 교수로 특채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렸고 하반기에는 제주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이 부부동반으로 해외 선교지에 다녀올 계획을 세웠다. 이어서 인근 레스토랑에서 풍성한 애찬과 다과를 나누며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생명의 강을 만들라’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4

월 8일(월) 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경옥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서미곤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권 47: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생명의 강을 만들라’는 제목의 설교, 재무 김연옥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박용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정기지방회는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진행으로 임원회 및 월례회 보고, 총무보고, 결산보고 등이 있었으며, 2019년 예산안 심의와 신임 임원 선출 등을 결의하였다.

이날 새 임원으로 회장에 한순남 목사(순복음만송교회), 부회장에 김경옥 목사(순복음하늘소망교회), 총무에 조은혜 목사(순복음빛교회), 재무에 김명주 목사(순복음열방교회), 회계에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가 선출되었다.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3월 26일(월) 정읍순복음중앙교회(박상규 목사 사무)에서 지방회를 열어 지방회 새 임

원을 선출하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심해원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의 권전 2:17-2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 증경회장 고현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지방회의 시간에는 지방회의 새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이날 선출된 새 임원은 회장에 심해원 목사, 총무에 양희철 목사, 서기에 김현배 목사, 재무·회계에 박운석 목사 등이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정읍순복음중앙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애찬을 함께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4월 2일(화) 오전 11시 순정순복음교회에서 제35차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증경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김종호 목사(순정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담전 6: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함께 겸손하고 낮아지며 순종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는 지방회가 되자”고 당부하였다.



증경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어진 2부 지방회의에서는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지방회 임원선출은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 총무 최강욱 목사, 서기 이광호 목사, 회계 박종석 목사

등 지난학기 임원들이 연임하기로 하였다. 정기지방회 후에는 오찬을 갖고 추월산 등반과 목욕교제로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각자 목양지로 향하였다.

기도에 나태한 목회자가 되지 말라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서베드로 목사)는 지난 4월 2일(화) 오전 11시 목포시내산교회에서 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현기봉 목사(장계순복음교회)의 사회로 회계 민순복 목사(새생명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김경구 목사(월암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잠 16:9 말씀을 본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때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소다”라며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감사



하는 삶을 살 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소다”고 전했다. 또한 “기도에 나태한 목회자가 되지말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어 증경회장 왕상엽 목사(순복음은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지

방회에서는 전 임원들이 그대로 올해도 봉사하며 섬기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목포시내산교회에서 전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애찬으로 식사를 하며 사랑으로 친교하였다.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목회자가 되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음 목사, 아멘 순복음교회)는 지난 3월 25일(월) 오전 11시 순복음후영교회(담임 김경준 목사)에서 제88차 정기 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용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경준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신병설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교단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가 잠 20:18 말씀을 본문으로 ‘목사가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 세상에 모든 비

국과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일어났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이슬라엘이 멸망한 것도,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며 “지금 교계 가운데는 WCC를 지지하는 교단과 목회자들이 있는데, WCC는 분명히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감시하게도 우리 교단과 우리 지방회는 WCC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려면 알고 있는 말씀을 자신에게도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심방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방회장 오병음 목사는 이월리 전도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게 전도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방회 신하 12개 교회 1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후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의에서는 서기 보고, 총무 보고, 재무 및 회계 감사보고 각 위원회보고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지방회 신 임원 선출에 들어갔다.

제88차 신 임원 선출에서는 지방회장에 김경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 부회장 신병설 목사(청주 주사랑교회), 총무 김용 목사(새생명교회), 서기 민병훈 목사(예광순복음교회), 회계 조재호 목사(청대교회), 재무 정재광 목사(생명교회)가 선출되어 한 회기 동안 지방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게 되었다.

이어 신임 지방회장 인사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단과 지방회 신하 교회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자리를 옮겨 순복음후영교회에서 마련한 오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생명의 말씀



정기영 목사

· 부산지방회장
·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사 61:1)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눅 4:14에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같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주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놓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본질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것은 상처 입은 마음이 아니라 이담의 죄악 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은 내적 자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된 본성 자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막 7:20 이하에서 상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롬 6:5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몸이 있기에 죄의 종,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

수 없게 되고 다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음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는 온갖 종류의 음란물, 특히 밤이 되면 tv를 틀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안방에서 음란물이 방송되고 있으며, 예술이라는 명목 하에 동성애를 드러내는 등 온갖 음란 문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이런 음란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탐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남편의 눈을 바늘로 찔러 소경으로 만들어 죽게 한 다음 보험금을 타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기 엄마가 소독하지 않은 물을 먹여 아이가 장염에 걸리게 하여 보험금을 타고 그 아이가 죽자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장염에 들게 해서 보험금을 타고 그 아이가 죽게 됨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짜 간장, 가짜 참깨를, 석화가 든 두부, 가짜 돼지고기를 만들어 사람이 먹으면 병이 들게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등 지금 세상은 돈이

된다면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맘몬신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경고합니다. 담전 6:9 이하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잠 21:6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합니다. 돈의 미혹을 받음으로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며 마지막은 멸망이라 합니다.

눅 16:13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재물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귀히 여기면 맘몬신이 그를 우습게 보지만 돈을 함부로 여기면 맘몬신은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회가 크나 작으나 돈을 귀히 여기면 그 교회는 맘몬신에게 사로잡히지만 돈을 함부로 여기면 맘몬신이 그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은 잘 다뤄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복이 땅의 복을 의미하지만 물질의 포로된 자는 이처럼 위험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성경구절을 찾아보았지만 사람들은 음란과 탐욕과 모든 죄에서 벗

어날 수가 없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음란이나 탐욕에 포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케 되겠습니까? 요 8:31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십니다. 말씀을 거한다 하는 것은 말씀 따라 살 것을 결심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절 36:25 이하에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상하고 굳은 마음을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죄의 포로에서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본질은 사람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미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있다.

그밖에도 여러 교회들이 별도로 사회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활동들을 감행한다면,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웃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곳이 기독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교회들이 예배당과 교육시설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 구성을 위한 건축을 비난하는 것은 뭔가 뒤뜰된 시각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년 양보하여 한국교회가 커지고 그 역할이 기대해지는 것을 못마땅해한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사회악도 아닌 교회공동체의 결의와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교회 건축하는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이는 언론이 심각하게 교회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교회 본질은 개인의 영혼 구원과 성정에 있는 것이 우선이며, 사회사업이나 복지에 관한 일들은 그다음 순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사회 돌봄’의 수고를 하면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해서도 밀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른 언론의 역할이라고 본다.

동정

전국신학대학협 회장에 이정숙



이정숙 햇볼트리 니티신학대학 원대 총장이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총장은 지난 3월 29일 열린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제54차 정기 총회에서 서울장신대 안주환 총장에 이어 2019년 54회기 신임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원로목회자총연 김재용 목사



한국 교회 원로 목회자의 권리와 복지를 책임질 교계 단체가 출범했다. 원로목회자 300여 명은 지난 3일 낮 서울 종로구 김상옥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예배실에서 ‘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한원총)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대표회장 김재용 목사(의왕고천교회 원로)를 선출했다.

장택현 전 총장 시인등단



백석대학교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격월간 시사사에서 공모한 ‘2019년 상반기 시사사 신인추천 작품상’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장 위원장은 ‘시간의 방정식’, ‘꽃의 인사’ 등 50여 편의 시로 공모에 응시했다. 장 위원장은 충남 아산 출생으로 백석대 제5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백석대 대학혁신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에일디자인 교회건축 세미나



㈜에일디자인그룹(이선자 대표)이 지난 4월 4일 서울 강남구 파크하얏트서울호텔에서 ‘교회건축, 새로운 틀!’이란 주제로 교회 건축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선자 대표는 “한국교회 건축이 큰 틀을 바꾸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요즘 아이들에게 교회는 맞춤형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agpgs.aogk.org

2019 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소설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전수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한국교회 진단

WCC, WEA는 불법의 자식, 뒤집어 얹어진 거짓 복음

한국교회에 고함! 주님의 종이 될 것인가, 사탄의 종이 될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성경은 영구불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토를 달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삶의 지표이며 절대적인 기준이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기록이며 믿음의 선진들의 좌절과 인내, 실패와 성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룩한 발자취이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 자칭 지도자들이라고 우쭐대는 목사들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이 절대적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놓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정신을 지리지 못한 채 작은 교황(교회의인 황제)들이 되어 가고 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하는 교단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틀리다고 느껴진다면서 가차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떠나야 한다. 본인의 영생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교통합을 꿈꾸는 WCC 에 큐메니컬 운동, WCC는 기독교회라고 둔갑한 표리 아홉 달린 방자한 요물이다. 또한, WEA와 이교도인 로마의 종교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 운동에 좌우 살피지 않고 교단과 담임 목사의 방침이라고 무조건 따라가거나 동조하는 것은 영적 무지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순진무구한 성도들에게 그 사악한 영적 위험성을 알려줄 의무와 사명이 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8:33).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 태어난 자식이라고(요 8:44). 후손이며 조상의 정체성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요 8:39).

지금의 한국교회 실상은 마치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나뉘는 산개!는 예수님 당시의 위선자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본래의 정통 기독교회가 타고난 정체성은 시간이 갈수록 상실되어가고, 오히려 정반대의 정체성으로 점점 변질, 변형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한국교회이다. 우리가 아는 정통 기독교회는 루터, 칼빈, 쾰링글리, 요한 루스 등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종교) 개혁으로 비롯된 다음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로마제국의 종교 가톨릭'의 수장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비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이며 이교도적인 교리, 제도, 전통을 가진 우상의 종교로마 가톨릭'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 중심 위에 서서 개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된 본래, 초대 기독교회로 회복시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해방 받고 끊어진 오욕의 역사를 끊임없이 성경중심으로 개혁시키며 이어온, 이것이 정통 기독교회가 타고난 생명이요 불변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정통 기독교

회를 우상의 종교 로마 가톨릭'에 '일치'시켜 희석시켜 버리려는 미혹의 가짜, 거짓 복음을 도입, 망령된 정체성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한국교회를 정통적인 기독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정통 기독교회라 함은 비성경적이고 기독교회의 적 敵이 되는 교리 및 제도와 전통을 절대 배격한다. 오직 성경만을 토대로 한다. 그 말씀 위에서만 정확한 기준을 세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사상의 기초를 서슴(가감)없이 오로지 말씀에서만 제시해주는 길을 따라간다. 오랜 세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순교자(개혁자)들이 모진 피와 땀 위에 세워놓은 그 길 위에서 지켜지고, 전수되며 이어져 내려온 것이 오늘의 성경적인 본래의 기독교회를 지킨 원동력(原動力)이며 이를 정통 기독교회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목사들의배도,배교의시대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추구하고 있다. 곧,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 전통을 배척하거나 경계하기는커녕, 이들의 사상을 포용하며, 혼합주의에 기웃거리다 못해 이제는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물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통 기독교회를 일으켜 세운 믿음의 선진들의 후예들이라고 자부하던 통합 교단과 NCCK는 이미 더 이상 정통 기독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정통 기독교회를 아주 해괴한 혼합 종교이며 우상종교인 로마 가톨릭에 '일치'시켜서 본래의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려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기독교회는 본래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채 단지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단체(집단)로 전락할 수도 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흘린 순교의 피와 땀의 열매로 지금까지 기독교회를 굳건히 지켜 왔다. 성경에도 없는 하나의 유사종교인 로마 가톨릭'을 배격하고 본래의 기독교회로 회복시켜 놓은 정통 기독교회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2014년 5월 22일 로마교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를 맺음으로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버리려는 통합 교단과 NCCK, 이들이 과연 무슨 기독교회란 말인가?

만약, 이러한 영적 기만행위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통 기독교회에 대한 배도, 배교자들요, 말씀의 반역자요 진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하나님의 원수요 심판 날, 불에 소멸될 가라지여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에 속한 규모가 한국교회 절반 이상의 수준이니 아직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과연 통합 교단과 NCCK 소속이 아닌

나머지 한국교회 절반의 경우도 정통 기독교회로 타고난 생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또한 절대 그렇지 못함이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의 나머지 절반이라도 믿음의 선진들로 비롯된 정통 기독교회의 개혁 성향과 그 정체를 고수하고 있다면, 통합 교단과 NCCK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고 경계하며 때에 따라서는 배락 치듯이 경중이라도 울려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의 학연, 지연, 강단교류, 부흥집회 인도 및 연결, 인연 등 상하 이익 관계로 열기 설기 얹혀, 그대로 용인, 서로 존중하며 점점 같은 무리로 동화되어 변질되어가고 있다.

불행하게도 통합교단과 NCCK의 배도, 배교, 하나님의 원수 행각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각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으로 존중하고 이들과 연합해 버린 것이 불행하게도 합동 교단이다. 합동 교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합 교단과는 WCC로 인하여 강단교류도 금지해 왔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나마 한국교회의 보수교단의 마지막 보루라고 자처하던 합동 측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불과 3, 4년 전부터 성경 총회장들의 욕심과 그들의 신학적 무지의 소산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 시작했다.

결국엔 그 울타리가 무너지더니 합동 측마저도 서서히 변질되어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지경에 까지 와있다. 그동안 굳건하게 고수해오던 본연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무 함없이 팔려가려는 하수 아비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의 모든, 한국교회의 영적 현주소로 탐바꼽히고 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이렇게 영적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쥐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 정작 당면한 영적인 문제가 아닌 온통 육적인 다른 곳에는 온갖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낭비하고 있다. 육적이고 세속적인 일에는 관심과 열정을 쏟아내며 넘치는 에너지를 아낌없이 발산하며 영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곳에 힘을 빼고 있다. 뱀비한의 개구리처럼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인본주의 사상에 알개 모르개 서서히 잠식되어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의 원인은 WCC, WEA 이교도인 로마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이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자라난 하나님과의 원수요 악으로 변질, 위조된 거짓의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본 연대는 믿음의 선진들로 비롯된 정통 기독교회가 다음 세대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독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이를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의 알뜰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다.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한국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WCC, WEA 이교도 로마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의 사악한 간계를 드러내어 더 이상 한국교회가 미혹 당하지 않도록 할라와 더불어 정통 기독교회에 대한 배교, 배도, 반역,

대적 행위를 일으킨 WCC 회원인 통합 교단과 NCCK를 강력 규탄하며 회개할 것을 지면을 통하여 촉구하는 것이다.

통합 교단과 NCCK는 하나님과의 원수 됨에 있어서, 속한 교단이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1) 하루속히 2009년도에 가톨릭'과 '일치'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취소, 선포하고, WCC 회원에서 공식 탈퇴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2) 2013년 10월 제2의 신사집례요, 사탄의 회인 종교다원주의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개최하여 한국교회에 영적물의를 일으킨 주회자들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습 찢으며 회개해야 할 것이며, 한국교회에 갖은 우상을 끌고 들어온 패악 짓에 대한 영적 불륜을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 3) 2014년 5월 22일 가톨릭'과 함께 정립한 '신앙과 직제 일치'를 파기 선언하고, 4) 2017년 102회 총회 시결의 통과시킨 관련 사실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과 한국교회 앞에 공식 파기 선언해야 할 것이다.

복음주의는 기만을 쓰고 누룩처럼 침투한 사탄의 간계 WEA

지금 한국교회는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빠르게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WCC와 '신앙과 직제 일치'도 문제이지만 WEA가 더 큰 문제이다. WEA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WCC도 포용하고,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는 이교 로마의 종교 가톨릭'도 포용하고, 자유주의 신학도 포용하고, 공산주의 사상도 포용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회 철학도 포용하고, 정치 정당도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WEA는 정통 기독교회를 파괴하는 대적들로서, 복음주의라는 위장된 교묘한 양의 털을 쓰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안으로 누룩처럼 침투하였다.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좀 먹듯이 아금아금 먹어 치워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다. 그럴듯한 WEA의 포용주의 정체성안으로 끌어들이 정결한 정통 기독교회의 일원들을 개종시키려는 최대의 대적이 WEA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WCC와 WEA가 목적하고 추구하는 구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복음 전도 사명과는 완전히 다른 뒤집어 얹어진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 변개 시간, 인간 사상에서 비롯된 저주받을 다른 복음, 거짓된 사탄의 복음이다.

갈 1: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 1: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갈 1:8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WCC, WEA는 기독교회의 옷을 입고 기독교회 자리에서 기독교회처럼 행동하지만 그 모든 모양새는 이리가 덮어쓴 양의 털이며, 가면이며, 회칠한 무덤이다. 그들은 불법의 자식들이다. 그들에게서는 천국 시민의 뱀새가 나지 않는다. 이들이 비록 성경을 들먹이지만, 자신들이 가진 인본주의 인간 사상을 교회 안에 고스란히 세우려는 자들이다.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됨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인이었던 우리 옛사람도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 새 사람이다.

골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나라"

이러한 정통 기독교회는 인간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존재이다. 이러한 기독교회 안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인간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생과 상관없이 있는 이교 사상들을 교회 안에 점목, 추구하는 자들이 WCC, WEA, '신앙과 직제 일치'이다.

이로 인하여 지금의 한국교회 대부분은 WCC, WEA의 인간 세속 사상을 따라서 인간 세계 나리틀 교회 안에 세우는 일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하여, 정통 기독교회 일원(성도)인지, 이 세상의 타락한 사회 일원의 일부인지 도무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골 2:8 "누가 철학과 학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으로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한국교회는 지금 500년 전 로마 종교 가톨릭'과 맞서서 싸운 교회(종교) 개혁자들의 정신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다시 로마 종교 가톨릭'에 자진하여 귀화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에 본 연대는 죽은 나무와 같이 생명이 없는 WCC, WEA, 이교도 로마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의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인본주의 사상 등이 한국교회 안에서 갈수록 거세게 주장되며, 세위져 나가고 있음을 통하여 여저 일사각오 순교의 정신으로, 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안에 굳게 세워지고, 진리만 주장되며 성취되는,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스물다섯번째의 소책자를 발행하는 것이다.

주후 2019년 4월 1일

WCC · WEA 반대운동대

홈페이지: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영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구조(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100억의 지구촌을 섬길 인재양성

CULTIVATING LEADERS

글로벌선진학교

대한민국 대표 크리스천 국제화교육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2019학년도 2학기 편입생모집

I 음성 캠퍼스 입학설명회 일정

1차 4월 27일(토) 오후 2시
2차 6월 15일(토) 오후 2시
 (문의) 043-871-7050 www.gvcs-es.org

I 문경 캠퍼스 입학설명회 일정

1차 4월 27일(토) 오후 1시
2차 6월 15일(토) 오후 1시
 (문의) 054-559-7000 www.gvcs-mg.org

I 가을학기 모집일정

2차 4월 8일(월) - 5월 22일(수)
3차 5월 27일(월) - 7월 3일(수)
팬실베니아 캠퍼스 : 수시접수
 (문의) 070-4422-6289 www.gvcspa.org

입학상담 1588 - 9147

최근6년간 GVCS졸업생들이 합격한 주요대학현황

2019년도 졸업생 국내·외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 총액 36억 상회!!

지역(Area)	대학명
미국 (USA)	시카고, 컬럼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코넬
	UC 버클리, UCLA, USC
	라이스, 밴더빌트, 예모리, 조지아텍
	미시간 (Ann Arbor), 버지니아 (UVA), 카네기멜론, NYU, 보스턴
유럽	워싱턴(St. Louis), 일리노이 등
	영국런던대, 런던예술대 등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레이튼대,
	에라스무스 로테르담대, 마스트라히트대 등
오세아니아	독일 아헨스 브레멘대
	스위스 레로쉬, 프랑클린 등
	스웨덴 연외핑대
	호주 시드니대, 퀸즈랜드대 등
캐나다 (Europe Oceania Canada)	캐나다 토론토대, 맥길대, UBC 등
	중국 시안교통대, II 등
아시아 (Asia)	싱가포르국립대
	일본 와세다대, 게이오대, 소피아대 등
홍콩 (Hong Kong)	홍콩과기대, 홍콩중문대, 홍콩시립대, 홍콩이공대 등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한동대
한국 (Korea)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100억의 지구촌을 섬길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글로벌선진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STEAM 기반의 교육과정을 이미 완성하여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지방회 위해 일할 신임 임원 선출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3월 28일(목) 오전 11시 북울신순복음교회(담임 윤득주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신홍섭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권점식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이성석 목사의 수 3:14~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무엇을 앞세우고 살아갑니까?'라는 제목의 설교,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해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각종업무보고와 회부처리, 신임임원 선출, 예산안심의 기타토의 등의 시간을 은



헤기운데 잘 마치고 황수길 목사(안양순복음교회 원로)의 기도도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선출된 신임 임원은 회장 권점식 목사, 부회장 신홍섭 목사, 총무 성기찬 목사, 서기 황용식 목사, 재무 권택선 목사, 회계 이순애 목사 등이다.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4월 9일(화) 오전 11시 은혜와승리교회(담임 이은승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먼저 1부 순서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윤두환 목사(행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조광선 목사(순복음반석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윤정현 목사(송천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 목사는 막 10:42-4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과 같이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단히 올라가야 할 것임을 촉구했으며 모든 회원들은 지도자로서의 직임을 다하며 또한 지방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회장과 임원단의 사역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회계 김경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한글기도와 신임회원인 황동운 목사(거진양분교회) 부부의 인사소개가 있는 후 윤정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사진 촬영 후 지난 12월 고성에서 가진 송년야유회의 영상을 보며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한 후 2부 순서로 정기지방회를 속개하였다.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사회로 각종 회부처리를 마친 후 제88회기를 이끌어 갈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였다. 선거위원장으로 위촉된 증경회장 윤정현 목사는 지난 해 지방회의 나침으로 아픔을 겪으면서도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로 잘 극복하여 오히려 더 화목하고 안정된 지방회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회장 및 임원을 그대로 유임하고 공석인 재무만 새로 뽑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모든 회원이 찬

성함으로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 부회장 조광선 목사(순복음반석교회), 총무 및 서기 윤두환 목사(행평순복음교회), 회계 김경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 재무 이정옥 목사(산신교회)가 선출되었다. 정기지방회를 은혜기운데 성료한 후 회원들은 하남시에 있는 부페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은혜와승리교회에서 공개하는 사본사브와 부페로 풍성한 식탁을 나누었으며 그대로 헤어지기 섬섬하여 인근에 있는 하남해체단지에 들러 각양각색으로 활짝 핀 꽃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5월 정기총회 때 만날 것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향하였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은 힘들어도 소망을 갖고 헌신할 것’ 다짐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4월 4일(목) 오전 11시 순복음복원교회에서 제59차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조은주 목사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고 서기 조길수 목사의 기도, 회계 배영래 목사의 성경봉독, 재무 박우진 목사의 한글기도, 그리고 직전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반전 5: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목장이 주실 상을 바라며'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목회하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여교역자 일동이 '호렙산 땀가나



무에'라는 은혜로운 특송을 해주었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총회와 지방회를 위하여 증경지방회장 주덕영 목사, 조원재 목사, 김경식 목사가 기도를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회장 최정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회부처리에서 새 임원으로

로는 회장 최정식 목사, 총무 조길수 목사, 서기 김영호 목사, 회계 배영래 목사, 재무에 김경순 목사가 헌신하기로 했다.

모든 회의 순서를 마치고 회장 최정식 목사가 풍성한 장어요리로 섬겨주어 행복하고 화기애애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병호 목사)는 지난 4월 8일(월) 오전 11시 열린축복교회(담임 전하세 목사)에서 4월 정기지방회를 갖고 임원 선출을 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김바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전하세 목사의 기도, 서기 조영진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병호 목사의 설교, 회계 최금자 목사의 한글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교회)는 빌 4:6-7 말씀을 본문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염려"는 마음과 생각과 판단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염려'는 불안한 즉 믿음의 결핍이다. 또한 '염려'는 교만한 행동이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바탕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염려를 완전히 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을 성령으로 보여 주신다"고 회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각종회부처리와 함께 선거관리 위원장 김종현 목사의 인도로 2019년 지방회 신 임원을 선출하였다. 지방회장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는 모든 회원들이 박수로 추대하고, 부회장 은금옥 목

사(선한이웃교회), 총무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래교회), 서기 안재봉 목사(순복음비전교회), 재무 조광현 목사(드림교회), 회계 유정숙 목사(시온성순복음교회)를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공포했다. 정기지방회를 마친 후 열린축복교회(전하세 목사)에서 준비한 맛있는 뷔페식으로 몸과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한 때를 보내며 교제한 후에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자!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일선 목사)는 지난 4월 9일(화) 순복음금강교회(담임 장호순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순천교회)의 사회로 재무 김영희 목사(순복음창대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증경지방회장 장호순 목사(순복음금강교회)의 특송, 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은혜로운 말씀증거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요 8:21-30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설교에 이어 직전회장 오승욱 목사(천안서복교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증경지방회장 황수반 목사(순복음나눔교회)의 교단과 지방회를 위한 기도



증경지방회장 임영신 목사(순복음부활교회)의 교회와 교역자를 위한 기도, 증경지방회장 원분경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의 지역복음화를 위한 기도, 이어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의 한글기도, 증경지방회장 류승장 목사(순복음여울림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부에서는 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의 사회와 석춘자 목사(부여순복음교회)의 기도,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각부 보고와 각

종 회부를 처리한 후 신임 임원으로 회장 장호순 목사, 부회장 원분경 목사, 총무·서기 전홍식 목사, 재무 김영희 목사, 회계 한정숙 목사를 선출하였다. 이어서 신임회장 장호순 목사가 직전회장 오일선 목사에게 지방회원 일동으로 선물을 증정하였고 신임회장 장호순 목사의 폐회선언으로 회의를 모두 마쳤다. 회의 후에는 순복음금강교회에서 제공한 뷔페식으로 점심을 함께하며 즐거운 교제를 가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태국선교여행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상기 목사)는 지난 3월 25일(주일)부터 30일(토)까지 5박6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렘 6:19)'라는 주제로 김학봉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땅에 14명의 회원들이 다녀왔다.

오랜 입국심사를 거치고, 현지 선교사인 김학봉 목사의 인도로 사역현장을 둘러보며,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모지인 태국 땅을 섬기며 6개의 현지교회를 세우고, 현지지도자를 꾸준히 지원하는 일,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배신과 무너진 교회로 인해 수많은 눈물을 흘린 일, 그럴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하는 선



태국 안다옥교회에서

교사의 고백같은 선교보고를 들을 때 감동을 더했다.

그리고 태국 하나님의성회 소속 신학교를 탐방하여 그곳에서 섬기는 총무목사 내외부의 따뜻한 안내를 받으며 신학교를 둘러보

았다. 그리고 그 시설과 환경에 놀랐다. 건물 앞, 뒤에 펼쳐진 푸른 잔디와 넓은 호수는 주님의 품처럼, 그리고 주님의 초점으로 느껴졌다.

사역지마다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선교비와 가져온 물품을 전달하여 현지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한 태국의 전통공연을 보며 이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유적지와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태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함께가는 여행을 통해 회원들은 서로를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태국 하나님의성회 신학교앞에서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안홍규 목사)는 지난 4월 9일(화) 오전 11시 아산시에 소재한 한사랑교회(담임 안홍규 목사)에서 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안홍규 목사의 사회로 이인복 목사(송죽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지방회 부회장 김영권 목사는 마 4:1-11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사순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금식한 후에 찾아와 세 번에 걸쳐 시험한 마귀의 시험과 같이 우리들의 삶속에 틈타는 고난에 대하여 분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 승리하기를 당부하였다.



2부 회부처리는 회장 안홍규 목사의 인도기운에 김영권 목사의 기도도 개최하여 전회의록 낭독 및 회계보고를 한 후 신임임원을 선출하였다.

지방회임원 인선위원장 진동은 목사는

앞서 가진 임원선임을 위한 모임에서 현 임원을 연임하기로 한 내용을 보고하고 전회의록 낭독 및 회계보고를 한 후 신임임원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현지방회 당면문제에 대해 협의 토론했고 안홍규 목사의 기도도 폐회하였다.

춘계모임 및 단합대회, 모이기에 힘쓰자

교단 부흥사회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3월 28일(목)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새김전교회(담임 신재영 목사)에서 춘계모임과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교회예배에서 부회장 최정식 목사는 살전 5:12-2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부흥사를 상호간에 서로를 귀히 여기고 화목하며 항상 선을 좇고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경 새세 SBS 드라마 '해치' 촬영 주변 및 상주 경천대에서 진행된 부흥사회 단합대회에서 부흥사들의 사역의 목적



은 영혼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두어야 하고, 사역 방법은 항상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잘 숙지하고 성경적인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사역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주변에 있는 맛집에서 애찬을 나누며 영·육간에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지구촌기독교총연합회 창립...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하는 단체 다짐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여 혼란에 처한 한국교회에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고자 사단법인 지구촌기독교총연합회가 창립되어 지난 3월 29일(금)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세광중앙교회에서 대표회장 김노아 목사 외 이사, 상임회장, 감사 및 임원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무총장 이성현 목사의 사회로 드린 1부 예배는 선임상임회장 한순용 목사의 대표기도와 이사 송대건 목사의 성경봉독(요 8:1-11), 세광중앙교회 하얀 날개의 특별찬양, 찬양사역자 김다혜 전도사와 세광중앙교회 세빛성가대의 특별찬양, 대표회장 김노아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세계기독교연합회 총회장·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의 ‘순기각’으로 두 번이나 땅에 쓰인 글’이란 제하의 말씀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한 일은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힘을 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기도를 당부했다.

이어 고분 김광호 목사가 축사로 은혜를 더했고, 자문위원 류형렬 목사와 상임회장 김은영 목사, 지도위원 김에스터 목사가 △나리와 위장자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사 △지구촌기독교총연합회 등을 위해 특별기도했다.



또한, 고분 예영수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및 본회 고분 정인찬 목사와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 한기총 명예회장 오관석 목사, 성서총회 부총회장 조영구 목사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2부 취임식 및 취임패, 위촉장, 임명장 수여식은 성서총회 부총회장 신승도 목사의 사회로 감사 유제상 목사가 취임식 기도로 문을 열었다.

이어 이사장 이성현 목사가 김노아 목사에게 대표회장 추대 취임패를, 김노아 대표회장이 이사장 이성현 목사에게 취임패를 각각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노아 대표회장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모든 임원들과 존경하는 선배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마음과 몸과 혼과 정신을 다 해 바칠 것을 하나

님께 약속했다. 이 약속은 분명 한국교회에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회장은 또한 이사 취임패를 비롯해 고분 추대패, 상임회장 추대패, 감사 취임패, 자문위원 위촉장, 지도위원 위촉장, 임원 임명장, 15분과위 위촉장 등을 각각 수여하고 오관석 목사의 축도, 감사 오준호 목사의 기도,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사단법인 지구촌기독교총연합회는 102단체가 함께 하기로 했으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한편 지기총은 서울시 동작구 대림로 40-1 2층 202호(T.02-844-7408, F02-843-7408)에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선진학교 또 한 번의 교육혁신

창의성 존중, 진학의 다양성 전문성 살려



글로벌교육선교회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사진)는 지난 4월 1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뉴국제호텔 회의실에서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독교 대안학교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음을 보고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교육기관 정식인가를 특한 대안학교로서 교육혁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그동안 글로벌선진학교는 많은 졸업생들을 세계 명문 대학 진학을 이룬데 이어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자신의 재능을 살려 창의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도 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1. 글로벌선진학교 또 한 번의 교육혁신

2015년 글로벌선진학교 미국(펜실베이니아) 캠퍼스가 개교한 이래 글로벌선진학교의 교육과정에는 놀랄만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교사들을 활용한 영어몰입교육 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환경적 제한요소가 항상 있기 때문이다. 영어구사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환경에 노출되는 양과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매일 영어로 듣고 말하고 하는 등의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내에 캠퍼스를 개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 글로벌선진학교 2019 대입결과를 통해 진학의 다양성 선포

크리스천 국제화교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글로벌선진학교는 2019년 4월 1일 현재까지 발표된 대입결과를 통해서 기독교대안교육의 새 지평을 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19학년도에 글로벌선진학교는 음성캠퍼스 65명, 문경캠퍼스 51명의 졸업생을 각각 배출하였고 총 116명이 11개 국가 126개 대학에 지원을 했다.

졸업생들의 대입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라 최종결과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대입결과를 정리해보면 92명의 졸업생이 지원 대학에 합격했다.

20명의 학생들이 지원 대학의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3명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야구선수 1명이 미국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에 입단하여 취업이 되었다.

100여의 지구촌을 섬길 글로벌인재 양성을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선진학교는 음성캠퍼스가 국내대학 21%, 해외대학 79%의 진학률을 보였고 문경캠퍼스는 국내대학 25%, 해외대학 75%의 진학률을 보여 해외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많았다.

해외로 진학하는 일반 학생들이 미국일본등의 유학에 치중되는 반면 글로벌선진학교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11개국의 우수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3. 글로벌선진학교의 내실 있는 진학지도 학부모들의 호평 이어져

글로벌선진학교의 진학지도 시스템은 일반 유학원을 능가하는 실속있는 진학지도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 화제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음성캠퍼스와 문경캠퍼스에 진학전문교사를 배치하여 9학년(중3)부터 단계별 맞춤형 진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진학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전문지식을 얻기 위한 학교를 결정한다.

(문의 1588-9147)

한장총 기후환경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대책 논의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장총) 기후환경위원회(위원장 김상윤 목사)는 지난 4월 3일(수) 나눔교회(담임 김상윤 목사)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장로교회가 기후환경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위원장인 김상윤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창조질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오히려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의미에서 “한장총 기후환경위원회는 주변국가 및 통일 이후에까지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직전 위원장인 오치용 목사는 “한장총은 2013년 서울시와 에너지 절감 관련, 그리고 2018년 플라스틱 없는 사회 만들기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기후환경은 한국교회와 사회, 혹은 국가와 공동 관심 및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장로교회가 교회 안에서 만의 활동이 아닌 영역을 넓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송준인 목사(청량교회),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전문위원에 최용수 박사(속평여대 겸임교수), 오치용 목사(꽃선출애굽교회), 백철호 목사(서진교회)를 위촉하기로 했으며, 5월 27일에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기

후환경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한국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노후 디젤승합차들을 교체함에 관계기관의 지원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국내 유일의 기독교 영화제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5월 7일(화) 개막을 앞둔 가운데, 배우 김정화를 홍보대사로 선정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을 비전으로 삼고 사랑의 가치를 영화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선별해 소개하는 모두의 영화축제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배우 김정화는 인기 시트콤 [뉴는 스톱]과 드라마 [백설공주] [1%의 어떤 것] [편의점] [은주]의 방, 그리고 영화 <그녀를 모르면 간첩> [봉이 김선달] <여중생 A>에 이르기까지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은 오는 4월 11일(목) 오후 4시 필름포럼에서 개최되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배우 김정화는 홍보대사 위촉식과 영화제 개막식 등 공식 행사에 참여하여 영화제를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지난 2003년 출범한 이래 공식 초청으로 구성된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매년 봄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기독교 이념의 영화제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교적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통한 의미로서의 작품들을, 일반 대중들에게는 보편적인 인류애로서 사랑을 구현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선보이는 영화 행사다. 올해는 ‘미션’을 주제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희망의씨앗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부활의 기쁨을 생명나눔으로!

그리스도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아름다운 의무, 생명나눔. 축복된 삶을 살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100세 이하의 성도라면 누구나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각막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내게 더는 필요없는 각막을 기증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해 주세요.

생명나눔 예배안내 문의 | 교회팀 02-363-217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서 지 방 회

엘사랑교회 창립예배

초대합니다

총서지방회 엘사랑교회 창립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서지방회장 안홍규 목사
담 임 목 사 정진학 목사

강사

진등용 목사
증경총회장
새소망교회

축 도

김재석 목사
동선교회

축 사

진명감 목사
주천안교회

권 면

강태진 목사
안동성교회

총서지방회 부회장

안홍규 목사
한사랑교회

총서지방회 총무

김명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총서지방회 재무

이인복 목사
송죽교회

담임목사

오수경 목사
순복음성자교회

정진학 목사
엘사랑교회

| 일 시 | 2019년 4월 15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엘사랑교회
충남 아산시 시민로 334-1/ 041-531-6230, 010-9698-8682
* 온양관광호텔앞에서 용화동방향의 170m 도로변에 있습니다.

‘신약신학의 과제’ 주제 신학포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제8차 신학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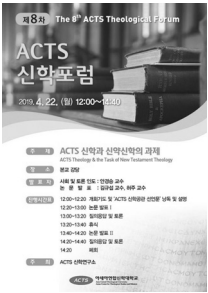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정흥호 박사) 부설 ACTS 신학연구소가 주최하는 ‘ACTS 신학포럼’이 4월 22일 낮 12시 경기도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된다.

‘ACTS 신학과 신약신학의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안경승 교수의 인도로 김규섭 교수와 하주 교수가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ACTS 신학포럼’은 ACTS가 신학공관 운동의 일환으로써 대학원 원우들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세미나이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인하

고 알리는 논문 발표 회로서 ‘ACTS 신학공관’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토론되는 학술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다.



홀트-신세계프라퍼티 후원협약

취약계층 아동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협약

홀트아동복지회와 신세계프라퍼티가 취약계층 아동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맘 든든 울타리’의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홀트아동복지회 김호연 회장, 홍우정 본부장, 신세계프라퍼티 이임용 사업지원담당, 전상진 지원담당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와 신세계프라퍼티는 대상가정을 선정해 화장실 및 주방 개선, 도배 및 창호 설치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는 주거환경 개선을 할 한 해 동안 실시하게 된다.

신세계프라퍼티의 주거환경 개선 기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희망배달 기금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전 사원의 참여와 회사의 화답을 통해 진행하게 됐다.

홀트아동복지회 김호연 회장은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아이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선물해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될 것이며 후원에 동참한 임직원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는 영육간의 강진함을 위한 길

친한 고향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평내순복을 교회의 박영수 목사라는 분이 순전에 왔는데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도를 한다는 것이다. 친구 목사가 박영수 목사와 함께 식사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7-8명을 전도하고 식사하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또 7-8명을 전도했다고 한다. 그 전도라는 것이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한다.

자니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영접기도를 시키며 이름과 생년월일과 연락처까지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 전도방식이 놀랍고 궁금했다. 사실 전도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이다. 전도를 안 할 때에는 전도가 고민이 아니었으나 전도를 시작하니 전도가 고민이 되었다. 전도를 하기 위해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써보아도 전도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치원에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한 명 두 명씩 알음알음 자연스럽게 전도되어 교회가 채워져 나갔다. 그러다가 작년에 위기가 닥쳤다.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사, 결혼 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거 생겼다.

예배와 각 모임의 분위기가 행해졌다. 목사로서 위기를 느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여태까지는 내가 사람들을 보내줬지만, 이제는 너도 전도 좀 해야지!’였다. 그래서 노방전도가 내 성격에는 맞지 않지만 순종하기로 하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다. 그러나 열매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들은 박영수 목사의 전도법은 믿기 힘든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경이적인 사건일 것이다.

게다가 전도만 놀라운 게 아니었다. 박영수 목사가

저녁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교회에는 30년 동안 왼쪽 귀가 안 들리던 권사가 있었다. 그날 밤, 목사는 설교 중에 “지금 귀가 열리는 분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였다고 한다. 그 권사는 설마 자기인줄 모르다가 집회 후에 혹시나 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왼쪽 귀에 대었더니 너무나도 선명하게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집회에 함께 참석한 딸은 병원에서 도 못 고치던 하혈이 멈추는 치료를 경험했고, 고등학생 아들은 백혈병이 그날로 치유 받았다고 한다.

친구 목사는 전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한 집회를 하니 이런 기적들도 일으켜주신 것이라고 했다. 전도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구원하는 것이구나. 전도는 불신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살리는구나 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왔다. 나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시작하는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 160기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날 강의를 듣고 영상들을 보고 직접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현장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지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전도였다. 그것은 능력전도였다. 이제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된다. 할렐루야!

가족세트전도 160기 회장
세트전도 서울동작구 지부장
주기쁨교회 백홍 목사

동영상 :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회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방안보’ 주제

한국기독교인연합회, 신원식 장군 국방안보 세미나

한국기독교인연합회(대표회장 심영식 장로)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방안보’라는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상임회장 김형원 장로의 사회로 총재 김범열 장로의 인사, 부총재 유재수 장로의 기도, 부서기 최성호 장로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심영식 장로의 빌 4:8-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지도자와 지배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심영식 장로는 “한국교회는 지도자가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병폐를 가지고 있다. 지배자들의 횡포가 심해 가면 교회는 부패하고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우리 지도자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일상에 충실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희 교수(백석대)의 특송에 이어 특강시간은 (전)합참작전본부장 신원식 장군이 ‘국방안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인도했다.

신원식 장군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속지 말고 원칙 있는 회담을 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한미동



맹은 균열되지 말아야 한다.”며, “김정은은 심시리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너무 앞서서 상대에게 양보하고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안보의 확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히 공동회장 석사현·김홍근 장로의 인도로 ‘대한민국의 정치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한국기독교의 일치 운동과 연합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사무총장 이영한 장로의 성명서 낭독과 애국가제창에 이어 부총재 권승달 장로의 마침기도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기연은 교회연합과 일치를 추구하고, 교권주의와 기복주의 및 이단 사이버 척결 등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평신도들의 신앙증진으로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단례로서, 다양한 국가미래와 교회에 대하여 올바른 대화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교연-인도 복음주의협, 선교협약

벵갈지역에 선교센터 및 5개 교회 개척 헌당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인도 벵갈지역에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인도복음주의협의회와 선교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인도 선교 지원에 나선다.

한교연 선교위원회(위원장 김바울 목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도 중부 벵갈루루 지역을 방문해 인도복음주의협의회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상

호 선교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현지의 선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인도선교센터 헌당식도 갖는다.

한교연 인도선교센터는 예정 호헌총회(총회장 김효종 목사)의 협력으로 건립되었으며, 헌당 후에는 현지 선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등으로도 운

영될 예정이다.

한교연 선교위원회는 또한 벵갈루루지역에 5개 교회를 개척해 헌당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현지 주민을 위한 의료선교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한교연 인도선교단은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 와 선교위원장 김바울 목사,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 등 7명이 참여한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2019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춘계 단합 기도회

주 제 : “이슬같은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자”(호 14:5~6)

- 일 시** | 2019년 4월 29일(월)~4월 30일(화)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접수
- 장 소** | 순복음반송교회(한순남 목사 시무)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63 교회 : 051-544-9155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국
- 문 의** | ① 국장 한순남 목사 (010-2853-8190)
② 차장 김바울 목사 (010-8652-9340)
- 계좌번호** | 농협 352-1333-4784-13(한순남)
- 회 비** | 1만원

2019년 춘계 단합 기도회 일정표

4월 29일(월)	4월 30일(화)
	7시30분 아침식사
	8시30분 폐회예배
	10시 부산탐방
	11시 점심식사 후 개교회로
3시 접수	
4시 개회예배	
6시 저녁식사	
7시30분 부흥회	
9시30분 숙소로	

초대의 글

할렐루야!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새 생명의 아름다운 계절에 남쪽의 따뜻한

바닷가 부산에서 여교역자국 춘계 단합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수고 하시는 여교역자 동역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다 모여서 성령충만 은혜와 충전의 기도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살롬

-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올림 -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지부장들은 참석 여부 및 인원파악을 하여 4월 15일까지 알려 주십시오.
(숙소예약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책위원장 조중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임동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감별교회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차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선교부장	섭외부장	사회부장	찬양부장	예배부장	봉사부장	정보부장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일신별교회 조영란 목사	회복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예전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문교회 이경자 목사A	순복음심종문교회 조은주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군일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복음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서울중부지교회 지부장	서울중앙지교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일산지방회 지부장	김포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충북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충주지방회 지부장
사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예수행기교회 정예스더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시냇가예수나눔교회 표현자 목사	중앙한성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목자교회 김현시바 목사	대정산기독교 임연일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방회 지부장	영남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부산동지방회 지부장	전북지방회 지부장	광주지방회 지부장	호남지방회 지부장	인천지방회 지부장	은진지방회 지부장			
통영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예교회 이순애 목사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이화숙 목사	순복음길교회 황희숙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정복례 목사	순복음삼기교회 신은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내가 택한 너이기에

하나님은 못난 것도 아름답다시고,
어리석은 것도 잘했다 칭찬하시고,
실수와 무지도 격려하며 용서하시는
이해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태산을 들어 옮길 믿음의 능력으로,
바다를 열어 길을 내신 그 소망의 날에
택한 자와 버린 자를 갈라놓아
섬김의 도를 순종으로 채우게 하신 주님.

정오의 빛이 있어도 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마음에 반딧불 하나 켜고
두 손 고이 모아 회개하고 생의빈 잔 높이 드니
다 채우고도 남은 열두 광주리의 사랑
보석보다 빛나, 눈 못 뜨고 주님 뵈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더 높이 쌓아올린 바벨탑에
눈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쌓아 올린 순종과 사랑으로 꽃 피우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 배우게 하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도, 내 마음속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가 강물 되어 흐르게 하시옵고,
주님 주신 평화와 위로가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는 차마, 세상은 할 수 없으나
내가 택한 너이기에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하며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강건해야

한국목회자건강연구센터 세미나 개최

한국목회자건강연구센터(회장 권영식 목사)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기독교한국침례회 36교회(담임 정상진 목사)에서 목회자 건강 상담세미나를 인도했다.

이날 권영식 목사는 강의를 통해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우리 육신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러한 육신도 잘 다스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 주의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세미나에 이어 오후 시간에는 성회를 인도했다.

권 목사는 레 1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몸에 균형을 잡아주는 교정과 건강법’이라는 제목의 설교



를 통해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특히 교회는 목회자 부부가 건강해야 교회성도도 영육이

강건하여 부흥할 수 있다.”며 “말씀과 건강을 통해 교회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사설

안보공백 우려, 기도로 힘 모아야

한미동맹의 와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와이 주둔 미해병대가 지난 3월 항공기 14대를 동원해 한국에서 사실상의 단독훈련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루이 크라피로 타 인도·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이 2일 해병대 창설 7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자료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 등 주일 미군기지나 괌이 아닌 하와이에서 출동했고, 사실상 한국 해병대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한반도에서의 미군 작전은 전구(戰區) 사령부인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직접 통제했다는 의미다. 미국이 아예 한국군은 물론 한미연합사까지 제치고 독자적 군사활동에 나선 정황도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말부터 공중정찰기 EO-5C 크레이지 호크를 서해상에 추가 투입하고, 특수전자정찰기인 RC-135S 코브라볼을 주일미군 기지에 급파했다. 본토해안경비대 함정까지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시켜 북한불법 활적을 막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비용 때문에 연합훈련도 못 한다고 했는데, 이전 독자비용으로 독자적 훈련·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와 언론들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리드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실제위기 시에 훈련 부족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낸 실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군사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며 “대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전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헨리 울슨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에 값진 협상 카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준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WP는 또 민주당 일각의 반응을 인용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미국의 위기 대응능력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NBC뉴스는 3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소식을 전하며 “북한 전문가들은 주요 훈련이 중단돼 군의 전투 위험 대응 능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동맹이 난 기류를 만나 표류해서는 안된다. 625전쟁 중에도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또 여호와 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4:47)

‘낙태죄 위헌’ 요청 인권위 국민 반감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동성애를 비롯한 수십 가지를 가진 사회적인 성(性)인, 젠더에 대한 인권은 무엇으로 보호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들처럼 동성애가 포함된 약법 소자가 큰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인권조례 제정 시도,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제22조 6항 폐지 주장, 각 지역별 퀴어축제에 부스 만들어 동성에 옹호하기, 동성애를 옹호하는 청소년 만화·애니메이션·영화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기, 각 학교에 동성애 옹호하는 학칙 만들도록 종용하기,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보다 동성애 옹호를 우위에 두고 기독교 대학을 압박하는 등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편적 인권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세계에서 20년 가까이 가장 인권 후진국으로 억압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인권위는 헌재 헌법

재판소에서 곧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내려질 상황에서, ‘낙태죄 위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한 마디로 인권위는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거나 원하지도 않는 지엽적이고, 편협한 인권들에 집착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하여 인권위가 건전한 국민 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주장들을 펴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을 한다면, 이는 그 존립에 대한 의구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인권위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한다고 하여도 그 정도가 지나치며, 헌법이나 국민들이 허락하지도 않은 권력을 행사하면,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가 우리 국민들과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은 외면하고, 편협한 동성애를 포함한 젠더 인권만을 강조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가기관을 그대로 두고 볼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제68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8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 | |
|---------------------------|---|
| 1. 총회일자 : 2019년 5월 20일(월) | 4. 사무총회 : 5월 20일(월) 오후 2시 |
| 2. 등 록 : 5월 20일(월) 오전 11시 |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
| 3. 개회예배 : 5월 20일(월) 오후 1시 |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

2019년 4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임웅재

5월 19일(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 총 회 주 일 _ 2019년 5월 19일(5월 셋째주일)
- 대 상 _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지방회 회원교회
- 총회주일안내 _ 전국 각 교회에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 주보 등을 활용해 교단의 성령충만한 사역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활용토록 함.
- 헌 금 구 분 _ 특별헌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80331(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총 무 목사 신재영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http://www.aogk.org>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e-mail:aogk@aogk.org

교사강습회에 와서 변화되는 교사가 됩시다!!!

교사강습회 "Come & Change!"

주제 : '진리' (요 14:6)

- 대 상 : 교회학교 교육 담당자 및 교사
- 교 재 : 2,000원
- 특 징 : ① 여름성경학교 활동프로그램 시연 및 자료제공
② 새로운 찬양 율동 보급
※ 찬양곡과 찬양율동 영상은 교단 및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③ 중·고등부 특강
- 일 시 : 2019년 5월 11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03번길 031-233-2922)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연 락 처 : 전화 02-2675-5181, 팩스 02-2677-5181
이메일 aogk@aogk.org

* 참가비는 없으나 교재를 구입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 참석을 미리 알려주시면 교회별로 자리를 배정해드립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